

사무장병원까지 개설해 '보험금 빼먹기'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한의사·의사·보험설계사·전문브로커 낀 조직범죄 활개
2016년 350건이던 광주 보험사기 적발 지난해엔 464건

〈중〉 진화하는 보험사기

광주북부경찰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환자를 한방병원에 소개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를 최근 구속했다. 또 허위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를 받은 광주지역 한방병원 한의사·의사 13명과 다른 브로커 1명, 허위 입원환자 149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브로커는 보험설계사로,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허위환자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주에서 병원 건물을 구입해 고친 뒤 한의사를 고용하는 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무장을 구속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한의사 14명과 허위 입원환자 120명도 적발했다.

광주지역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와 각종 직업군이 연계하면 서 조직화·기업화되는 등 보험범죄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6년 350건이던 광주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17년 379건, 2018년 4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도

2016년 84억여원, 2017년 376억여원, 2018년 174억여원 등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680억원(9.3%)이 증가한 것으로,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1010만원에 달했다. 전국적인 연도별 보험사기 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 입원·치료기간 부풀리기 등이 가장 많은 5810억여원(72.8%)이었고, 병화 등 고의사고 유발 1081억여원(13.6%), 자동차 피해과장 538억여원(6.7%)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살인·상해·병화 등의 강력범죄와 동시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형

태의 허위 진단 및 허위 입원, 입원기간 늘리기, 사고내용 변경, 피해자 끼워넣기 같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관공적 태도와 범죄의식 결여, 보험의 사행적 특성, 타 범죄에 비해 약한 처벌수위 등을 꼽는다.

또 많은 시민들이 보험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고수의 저위험'의 행위로 인식하고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도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반 사기범죄 1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평균시간은 20시간인데 비해 보험범죄 1건을 처리하는데는 평균 450시간을 넘는다"면서 "장기간 수사를 하는 보험범죄 수사 유공자에 대해 검거 우수자 특진과 같은 동기 부여를 하는 것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적십자의 날 제빵 봉사 세계 적십자의 날인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 봉사자들이 제빵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로스쿨 출신 검사 역대 최대 인원 55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4월 로스쿨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 임용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로스쿨 출신의 신규 검사 임용은 적게는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많게는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수준이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1명(38.2%)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철학, 신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10여개월간 검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역량 평가 등의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평가위원들에게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신입 검사 중에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이들이 포함됐다. 공인회계사, 안과 전문의, 치과 의사, 한의사, 경찰관,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등이 선발됐다.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 장교로 3년, 철강업체 회사원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한 뒤 검사가 된 사례, 의료단체·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시간에 이르는 봉사 활동 경력을 지닌 사례 등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봄철 자전거사고 '조심'...응급실 아동·청소년 절반 머리손상

헬멧 착용률 4.6%에 그쳐

응급실로 실려온 자전거 사고 환자 10명 중 4명은 아동·청소년인데다 헬멧 사용률이 5%도 되지 않아 절반은 머리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2017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전국 23개)을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는 총 4만6635명

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응급실에 들어온 전체 교통사고 환자 27만828명 중 1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자(3만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정도 많았다.

자전거 사고 환자 중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2만117명으로 전체 환자의 43.1%를 차지했다.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은(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고, 전체 자전거 사

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

소아·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발생했다.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상지(21.9%), 하지(15.7%)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쳤고, 70.3%는 미착용, 나머지는 착용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4 해질 19:24 달뜨기 08:57 달지기 23:43

산ibel 조심하세요

일교차 크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남서~서 | 0.5 | 북~북동 | 0.5 |
|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 | 북~북동 | 0.5~1.0 |
| 남해 앞바다 | 북~북동 | 0.5 | 북~북동 | 0.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북동 | 0.5~1.0 | 북~북동 |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북동 | 0.5~1.0 | 북~북동 | 0.5~1.0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10:17 | 05:11 |
| 여수 | 22:20 | 17:11 |
| | 05:43 | 11:44 |
| | 17:48 | --:-- |

◇ 주간 날씨

| 10(금) | 11(토) | 12(일)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
| ☀ | ☀ | ☀ | ☀ | ☀ | ☀ | ☀ |
| 12/26 | 12/26 | 13/26 | 13/25 | 13/25 | 14/24 | 14/24 |

조선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2년 연속 선정

공교육 기반 입학 전형 운영

조선대가 교육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1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조선대는 올해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대학평생 교육체제지원사업, 주요국가 학생 및 토

픽우수자 초청연수위탁기관, 아세안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초청연수 운영기관,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대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등에 이어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까지 최근 교육부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선대는 공교육 기반 전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가 가능한 전형 운영으로 입학 전형 내실화에 기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5·18왜곡처벌농성단 "극우단체 등 후원계좌 공개"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하 농성단)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왜곡, 폄해하고 있는 지만원씨와 극우단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후원금을 보낸 후원계좌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농성단은 또 이들을 불법 모금·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실에 전달

할 계획이다. 5·18 왜곡세력에 대해 누가 후원을 하는지 추적하고 있는 농성단은 제보 등을 통해 후원계좌 리스트 36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농성단 관계자는 "5·18 왜곡 세력 뿐 아니라 이들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뿌리뽑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자연의 향기 가득한 구례에서 봄의 싱그러움을 만나보세요!

떠나세요 봄이 있는 구례로

